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이 갖는 의미체계 연구

강소영

1.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본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다움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어휘를 통해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어학에서는 여성이 주요 관심사였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남성다움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는 주로 남성성, 남성다움에 관한 담론에 치우쳐 있었다. 즉 역사적으로 남성다움은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 이상적인 남성상의 변천은 어떤 제도와 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때로는 드라마, 광고 등 대중매체를 재료로 하여 이상적인 남성상을 그려보기도 한다. 그 결과 책임, 결단, 독립성, 성취주의, 힘 그리고 합리성을 갖춘 인간형(조혜정 1999)이나 적극적이고 합리적이며 강인한 남성성(한은경 2000)을 이상형으로 그려내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을 합리적이라고 부르는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등과 같이 책임, 결단, 합리, 강인

등의 어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책임감과 합리성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역시 지니고 있어 여성과 구별되는 남성만의 특징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드라마, 광고 등으로 한정된 기존의 연구대상에서 벗어나 남성다움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도입, 연구대상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목적을 가진 제작자의 생각을 반영한 광고 언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평범한 다수에게 내재하는 가치를 끄집어내어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남성다움을 특징화할 수 있는 어휘들의 목록을 조사, 이를 토대로 남성다움의 자질을 정리한다. 둘째, 남성다움을 특징화할 수 있는 어휘들을 그들의 실제 의미를 기초로 하여 분석, 분류하여 그들의 의미구조를 그려냄으로써 남성다움이란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게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성정체성 및 성역할과 관련된 스테레오타입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남성다움이란 남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질과 자격, 해야 할 도리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구실의 수행과 직결된 개념이며(조혜정 1999), 따라서 남자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다워지는 과정상, 특정한 사회와 문화의 환경에 따라 ‘남성답다’고 여겨지는 관념에도 변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지금까지 남성성, 남성다움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면 산업사회 시기를 거친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는 (1) 모든 여성적인 것에 대한 거부 (2)큰 수레를 끄는 사람이 되는 것(성공) (3)강한 느티나무 처럼 자신감에 넘치고 강한 것 (4)결과에 상관없는 공격성, 용기 등을

남성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시되는 1990년대, 2000년대의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털어내고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양분화 현상을 극복, 새로운 남성성을 창출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¹⁾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는 남성성이 다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남성을 남성답다고 여기고 있는지, 일반인들의 생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국어학에서의 남성성, 남성다움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언어를 연구하는 보조적 수단에서 시작되었다. 즉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와 비교하여 어떤 유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언어가 정리되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문제가 언어변이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가치체계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밝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남성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다수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은 서구의 연구성과를 대폭 수용하여 이를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는 연구들이었는데, 그래도 이를 통해 남성이 사용하는 문법형태(예. 서술문, 명령문 선호)와 여성이 사용하는 문법형태(예. 부가의문문, 청유문 선호)가 다르다는 보고나 남성은 여성처럼 표준형의 사용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남성어의 특징이 하나씩 정리되었다.(임홍빈 1993; 이석규, 김선희 1992; 민현식 1995)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성차별 문제를 광고나 속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김혜숙 1991; 임홍빈 1993; 신현숙 1994; 차현실 1999),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별되는 축으로 남성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남성어 연구에는 한계를

1) 이기욱(2005)의 논의를 재정리한 것으로, 1980년대의 남성다움의 자질은 David & Brannon(1976)이 미국에서 산업사회 초기인 20세기 초에 나타난 남성성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을 본고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7, 80년의 상황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성역할에 변화가 있음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함으로써²⁾, 그 대응쌍인 남성의 역할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인의 시선은 성별 언어 사용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진정한 남성다움으로 어떠한 자질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1)‘남성다움’을 상징하는 기본개념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을 통해 정리해 보고, (2)이들의 의미를 구체적인 예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의미체계를 밝히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남성다움에 관한 논의와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 한다.

3) 연구방법

‘남성다움’의 특징들을 광고, TV 드라마, 소설 지문분석 등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20대의 의식 속에 반영된 남성다움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우선 길에서 만난 20대를 대상(남성 60명, 여성 88명)으로 남성다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낱말들을 모아 통계를 내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는 명사에 모여 있었으며 형용사는 소수에 불과했다.³⁾ ‘그러한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형용사는 남성다움 즉 ‘남자에게 사회화되어 부여된 성질이나 특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터넷 상에서 20대 110명(남성 50,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2) 순종적인 전통 여성상과 달리 ‘일에 몰두해서 아름다운 여자’, ‘자기 삶을 연주하는 여자’, ‘자신 있게 사는 여자’ 등으로 형상화된 현대 여성은 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외모에서 내적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차현실 200).

3) 길거리에서의 설문조사(2007, 한국인의 언어구조 수업자료 원용)는 주관식으로 ‘남성다움’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3개를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조사한 것이다. 따로 품사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용사 목록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지 않다.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⁴⁾, 남성다움에서 연상되는 형용사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느림하다, 흰칠하다, 멋있다, 거칠다, 과격하다, 건장하다, 씩씩하다, 강건하다, 대범하다, 당당하다, 강인하다, 용감하다, 단호하다'를 선정하였는데, 본고는 남성에게 부여된 특징 중에서 장점만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하여 '거칠다, 과격하다'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흰칠하다 ① 길고 미끈하다

② 막힘없이 깨끗하고 시원하다

나. 당당하다 ①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

② 힘이나 세력이 크다

여자20대(88명)		남자20대(60명)	
단어	횟수	단어	횟수
근육	32	근육	24
운동	18	힘	20
티프하다	15	자신감	16
힘	15	군대	14
정장	10	주먹	10
키	9	지도력	10
강인	9	거칠다	8
책임감	9	자동차	8
카리스마	9	당당하다	7
자동차	8	의리	7

4) 이는 사이월드에 개설된 개인 홈페이지에 '남성다움'을 연상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형용사로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빈도수 5이상인 어휘들)이다. 물론 개인 홈페이지의 특성상 연구대상의 보편성, 일반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말뭉치의 조사결과('남성/남자답다'의 용례 분석), '당당하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강건하다, 거칠다, 느림하다, 멋지다'는 '남성/남자답다'와 공존하고 있어, 남성다움의 자질로 이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이외에 '믿음직스럽다, 과감하다, 냉철하다, 의연하다, 의젓하다, 호탕하다, 침착하다, 묵직하다'와 같은 다른 어휘들도 말뭉치자료에서는 나타났으나, 믿음직스럽다(2)를 제외하고 나머지 형용사들은 1번밖에 나타나지 않아 개인홈피에서 조사, 선정한 결과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 다. 씩씩하다 굳세고 위엄스럽다
- 라. 용감하다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차다
- 마. 대범하다 성격이나 태도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너그럽다
- 바. 강건하다 몸이나 기력이 실하고 튼튼하다
- 사. 단호하다 결심이나 태도 입장 따위가 과단성 있고 엄격하다
- 아. 건장하다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세다
- 자. 늠름하다 생김새나 태도 따위가 의젓하고 당당하다
- 차. 강인하다 억세고 질기다
- 카. 멋지다 보기에 씩 좋거나 훌륭하다

이들 대부분의 어휘들은 의지, 성격, 태도, 생김새, 모습 등 외면과 내면이 표현대상이다. 특히 외면은 길고 미끈하다(훤칠하다), 몸이 튼튼하다(건장하다)처럼 구체적인 물체로서 사람의 몸이 형용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본고는 이들 어휘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1차적인 기준으로 육체와 정신을 내세우려 한다.⁵⁾

개인의 인상은 겉모습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성격, 의지 등 성품이라 불리는 불확정적인 대상들과 어울려 형성되기도 한다. 이들 어휘들은 [보기에 씩 좋거나 훌륭하다]의 의미를 가진 '멋지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개개인의 인상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이 공통적이다.

- (1) 가. 훤칠하고 힘세 보이는 큰 키와 혈색 좋은 얼굴을 가진 호걸
 나. 늠름하고 좋은 육신으로 일어서 있는 한 수컷인 신이고자
 다. 강인한 신체와 쾌활한 심정과 용감한 기상
 라. 열쇠 따위 요구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그 당당한 열정이 좋고

5) 대부분 외모, 성품, 행동의 세 가지로 나누지만(민현식 1997), 인간의 행동, 자세, 태도 등은 내면을 거울처럼 비추는 외면(겉모습) 아래 묶이므로, 본고는 육체와 정신 두 측면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1)은 ‘훤칠하다, 늠름하다, 용감하다, 당당하다’가 건강한 육체(1-가)와 겁이 없고(1-다) 건전한 성품(1-라)을 가진 대상을 묘사하는 어휘임을 보이는 예이다. 이들은 모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응할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들 어휘들은 정서적인 자극이나 때로는 놀람의 상태에 유쾌하게 응하는 미감적 향유(하선규 303)를 공통의미로 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남성다움의 관련 어휘들은 대상이 가진 특징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동일하게 외양을 수식하는 ‘훤칠하다’와 ‘늠름하다’가 따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각각의 의미가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고는 각 어휘들의 공통의미로 [미감의 향유를 제시하고 이들의 변별적인 의미를 따져 남성다움의 어휘들이 갖는 의미구조를 체계화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세종말뭉치에서 검색한 예문들을 분석, 그들의 실제 의미를 따져⁶⁾ 서로 공통되는 의미, 변별되는 의미를 가려내 보려고 한다. 남성다움의 연상 어휘들이 가진 의미자질을 분석하는 것은 어휘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한 ‘남성다움’이란 용어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사전적 정의는 실제 예문의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씩씩하다는 [굳세고 위엄스럽다]로 정의되었으나, 굳세고 위엄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몸이나 기력이 실하고 튼튼하다]의 강건하다와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세다]의 건장하다는 정의만으로는 의미차를 알기가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기술이 씩씩하다, 강건하다, 건장하다를 개별적으로 놓고 그의 의미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단어들을 놓고 그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따져 실제 예문에서 공통되는 의미와 변별되는 의미를 가려내면 각 어휘들의 실제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가지고, 말뭉치자료를 이용, 그들의 공통의미, 변별의미를 찾아내려 한다.

2.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이 갖는 의미구조

1) 건강한 정신

(1) 불굴의 정신력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대한 일련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 역시 육체와 정신, 외면과 내면의 미덕이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외양은 우리의 감각, 특히 시각을 자극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따라서 외모만으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오감은 불우한 이웃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향해 열려있기도 한다.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 중 일부는 이와 같이 외모, 육체의 묘사에서 벗어나 있다.

(2) 가. 용감하게 불굴의 투지로 그 대열에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나. 날렵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듯싶던 시절이 있었다

다. 강건한 신체와 쾌활한 심정과 용감한 기상

라. 나가자! 인민 군대, 용감한 기세로!

(3) 가. 무언가 단호한 그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어서

나. 재심의하지는 EC측의 요구에 단호한 거부의를 표시했으며

다. 정확하고 단호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

라. 김도연이란 인물은 성격이 소탈하고 대범해서

(2)와 (3)은 ‘씩씩하다, 용감하다, 단호하다, 대범하다’가 투지, 느낌, 기상, 의지, 성격 등을 수식하여, 육체의 아름다움 이외의 것을 표현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아래와 같이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굴

www.kci.go.kr

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

(4) 가. 갑작스런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씩씩하게 말했다

나. 눈보라가 치는 날이나 여름 장마 속에서도 지각, 결석 없이 아이들은 씩씩하게 출석을 했다.

다. 우리 아이가 움츠러들지 않고 용감하게 비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라. 마을의 전통에 반대하는 용감한 젊은이들

(4가, 나)는 갑작스런 질문,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등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 ‘씩씩하다’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용감하다’ 역시 전통이란 커다란 벽을 뚫고 나아가려는 모습(라)이나 주위의 상황에 움츠러들지 않고 이겨내려는 모습(다)을 형용하고 있다. 이들 두 어휘는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불굴의 정신력]을 공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범하다’ ‘단호하다’ 역시 [불굴의 정신력]을 공통의미로 하고 있다.

(5) 가. 그런 것쯤 있을 수 있는 일로 대범하게 넘기었다

나. 영화관 또는 전시회에 가도록 내버려두는 대범한 면이 있다

다. 당신 속의 불균형-이들테면 대범히 지나쳐야 할 것에 대한

라.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가장 탁월한 사람을 고르는 대범함

(6) 가. 아내는 날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려 했다.

난 단호히 뿌리쳐 버렸다

나. 그는 친일파에게 몸을 의탁할 수는 없다며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

라. 갑판장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장의 결정은 단

www.kci.go.kr

호했다

(5)는 서술어 ‘넘기다/지나치다/내버려두다/뛰어넘다’ 등에서 나와 다른 타자의 행동을 용인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용인은 자신의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타인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차이를 극복했음을 말한다. 차이를 극복하였음은 상대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는 경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범하다’는 [불굴의 정신력]을 함축하는 어휘이다.

아내의 도움, 친일파의 도움(6-가,나)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일본의 도발이나 갑판장의 주장(6-다,라)은 반대의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의지가 ‘단호하다’에 담겨 있어, 이 역시 타인에게서 작용하는 억압을 이겨내려는 불굴의 정신력이 ‘단호하다’ 안에 들어있음을 보이는 예라 하겠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들 네 어휘는 [불굴의 정신력]을 공통의미로 하는 어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2) 불굴의 정신력+ ∞

앞선 용례에서 ‘대범하다’는 ‘넘기다/뛰어넘다’ 등의 서술어가, ‘단호하다’는 ‘뿌리치다/거절하다’ 등의 서술어가 나왔음을 보았다. 불굴의 정신력을 공통으로 하지만 두 어휘의 의미가 나뉘는 지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본 절에서는 각 어휘들의 변별적인 의미를 살펴려 하는데, 먼저 ‘용감하다’, ‘씩씩하다’는 [不動의 도전의식]과 [기세 높음을 변별자질로 가지고 있다⁷⁾]. ‘씩씩하다’가 쓰인 예문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씩씩하다는 극복하다 38회, 기세 높음은 25회이며, 용감하다는 극복하다 93회, 흔들림 없이 도전해 가는 장면이 31회 나왔다.

- (7) 가. 음색은 매우 씩씩하고 쾌활하여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며
 나. 건강하고 씩씩하던 로마의 정신은 차츰 병들어 썩어가기 시작
 다. 씩씩하게 먹고 씩씩하게 일하고 좀 좋냐?
 라. 그때 강조된 것은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되자는 것

(7)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밝고 활기에 넘친 사람이나 번성하는 국가의 모습을 그린 예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의 의기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운을 느끼며, 이를 끈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간다. 병들어 썩기 전의 로마의 정신을 형용하는 서술어 ‘씩씩하다’는 다른 것의 영향을 받기 전의 것, 본래부터 내가 지니고 있던 감정이 억제할 수 없이 솟아나오는 상태였음을 의미하고 있으며(7-나), 따라서 본래 내가 지니고 있던 의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참된 어린이가 될 수도 있다(7-라). 이처럼 ‘씩씩하다’에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운이 발휘되는 것, 즉 [기세 높음의 의미자질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용감하다’는 누구나 움츠러들 수 있는 위험한 장면에 자주 나타난다.

- (8) 가. 연안정비정이 호기 있고 용감하게 구조를 외치며 출동했다
 나. 바다로 나갈 때에는 망태를 지고 비창을 든 그 용감스럽고도
 미더운 자태
 다. 내 일 남의 일 가림 없이 용감하게 덤벼들고야 마는 아버지
 라. 게릴라 부대의 지휘관으로 일본군과 용감하게 싸웠지만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동일하나, ‘씩씩하다’와 달리 삶과 죽음, 승패에 상관없이 오직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여(가, 나) 자칫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다,라)에 쓰인다. 따라서 ‘용

감하다'는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면에서 두려움을 배척하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의 변별 자질로 [不動의 도전의식]을 내세운다.

결국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로 이들 두 어휘를 택한 것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세 높음]과 [不動의 도전의식]이 남성에게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단호하다'의 예문을 검토할 차례인데, '단호하다'는 상대방과 나는 맞서 있으며 서로 합일되는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화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쓰인다. 용례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가 후행 서술어로 '거부/거절/반대/배척' 등을 취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이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⁸⁾ 이는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9) 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다

나. 놀부의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된다

다. 맹자는 전통질서와 신분제를 부정하는 민중중심의 이론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라. 외무부측에 완곡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따라서 '못을 박다, 췌기를 박다'와 같이 선을 긋는 관용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단호하다'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8) '대응, 응수, 대결' 등을 사용하여 대치상황을 나타내거나(70회) '거부, 거절, 금지, 반대' 등을 사용하여 다른 이를 부정하는 상황(110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뿌리치다, 뿌리뽑다, 선을 긋다, 물리치다' 등 다른 이와의 관계를 끊거나(28회) '극복, 돌파, 관철, 결단' 등 자신의 의도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32회)하기도 한다.

(10) 가. 단호하게 못 박는 소리였다

나. 어른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썰기를 박아 말했다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물의 연계를 끊어지게 하거나(썰기를 박다) 의견을 처내는(못을 박다) 관용구들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단호하다’는 타인과 내가 맞서 싸우며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범하다’는 사전에 [사소한 것에 겁먹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술되어 있다. 사소한 것이란 말실수일 수도 있으며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그런 만큼 사태의 본질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대범하다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행동거지나 나의 미래 등 사소한 것이 대상이기도 하지만(11-가,나) 자국의 이익에 초월하고 초당적인 자세를 지니는 등 사안의 특별함을 대상(11-다,라)으로 하기도 한다.

(11) 가. 속으로는 채신머리없는 친구로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무관심을 가장하는 대범한 태도

나. 보이지 않는 앞날이 두려웠다. 나는 대범하지 못한 자신이 안타까웠다

다. 국제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범하게 행동해야 함

라. 여당이 가슴을 열고 먼저 실천하는 초연하고 대범한 자세를 갖추 때

자기와 타인의 차이, 자국과 타국의 입장 차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관용의 자세로 볼 수도 있겠으나, ‘대범하다’는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11-다,라)처럼 일이나 세계를 보는 관점이 넓고 크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의 변별자질로 [局量이 넓음을 설정한다. 따라서 아래 (12)처럼 ‘그릇이 큰 사람/대인’ 등의 어휘와도 호응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12) 가. 조그만 이익에 목숨 걸고 아귀처럼 싸우지 않는 대범하고 그릇이 큰 사람

나. 여유 있고 풍만하고 대범한 듯하여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대인다운 풍모를 풍긴다

다른 사람과 공존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대범하다’는 물질, 명예, 권력 등을 잊어버리고(12-가, 나) 마음을 무위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경지가 되면 外物에 자신이 부림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범하다는 ‘대인’과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결국 ‘단호하다’ ‘대범하다’ 두 어휘를 남성다움에서 연상한 데에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즉 불필요한 것들은 배타적으로 대하며(단호하다), 차이를 이해하고 세상사를 넓게 보려는 자세(대범하다)가 남성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1) 육체의 건강함+불굴의 정신력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으로 건강이 나빠진 학생들을 위한 건강 개선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이라는 로마의 구호가 그것인데, 이는 정신과 육체의 결합을 집약적으

www.kci.go.kr

로 보여준다. 이는 개화기 이래 서구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흐름이다. 특히 내전, 군부독재의 흐름 속에서 타인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려는 군인의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퍼져 남성다움은 남성의 신체구조를 결정하는 특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기 시작했다(조지 L 모스 184-191).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듯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 속에는 육체와 정신 양자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어휘들이 있다. ‘늠름하다, 강인하다, 당당하다’는 아래 (13)처럼 육체와 정신을 공히 형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13) 가. 키 1백75cm의 당당한 체구에 누구에게나 거침없는 성격
 나. 짧은이다운 당당한 사고를 갖고 있는 하소연으로
 다. 늠름하고 좋은 육신으로 일어서 있는 한 수컷인 신이고자
 라. 영철하고 늠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
 마. 저 강인한 이빨로 온통 세상을 물어뜯으려는 듯한
 바. 온유하면서도 강인한 성격을 가진 이상형을 구현

체구, 이빨, 육신과 같이 육체를 대상(가,다,마)으로 하면서도 사고, 기상, 성격 등 정신력에 대해서도 묘사(나,라,바)하고 있다. 물론 이들 세 어휘 모두 고난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순간을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14) 가. 여자에게 열쇠 따위 요구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그 당당한 열정이 좋고
 나. 배를 타고 돌아왔을 때 보여줬던 당당함과 믿음직한 모습은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다. 외부에서 작용해 오는 어떤 부당한 권유에도 떳떳하고 늠름하다
 라. 종손은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진 고초를 당한 흔적이야 숨길 수 없었지만

- 마. 새로운 문물에 눈뜬 젊은이들의 강인하고 열정적인 투쟁심
- 바. (비를 맞고 서 있는)인위적인 물리력 앞에서도 버티겠다는 강인한 생명력

열쇠 따위를 요구하지 않는 삶 즉 남들과 다른 삶을 살다(가), 맞서 싸우다(나, 다, 마, 바), 고초를 이겨내다(라) 등이 이들의 의미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구절이다. 이들에 기초하면, ‘늠름하다, 강인하다, 당당하다’는 외적인 갈등과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불굴의 정신력(가, 다, 마)과 체력(나, 라, 바)을 공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육체의 건강함+불굴의 정신력+∞

‘강인하다, 늠름하다, 당당하다’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건강함은 외부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갈등을 극복해 내는 힘이 되고 있다. 다른 이와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위치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인간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질을 공통적으로 지닌 ‘강인하다, 늠름하다, 당당하다’는 상대와 맞서 싸우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차를 가진다.

먼저 ‘강인하다’는 위기상황을 극복해 내고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어휘이다.

(15) 가. 고려 전기사회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인하게 존속한 고대사회였다

- 나. 유구한 역사를 지탱해 오고 혈통의 단일성과 언어의 통일성을 유지해 온 사실은 생활의식을 강인하게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

다. 어려운 과제를 견디어내는 정신의 강인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 맹수 사냥으로 이름난 강인한 부족 마사이 관광마을

‘강인하다’는 후행 서술어로 ‘갓다/존속하다/견디어내다’ 등이 온다. (15-가, 나)는 여러 번의 전쟁과 침탈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견뎌낸 정신이 대상이며 (15-다,라)는 어려운 과제나 맹수와 싸워 이겨내는 정신, 육체가 대상이다. 후행 서술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모두는 자신을 잃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견디어내고 살아남아 있음이 공통적이며, 따라서 ‘강인하다’는 [견뎌]를 특징으로 한다.⁹⁾ 따라서 ‘강인하다’는 [육체의 건강함][불굴의 정신력][견뎌]를 의미자질로 정리한다.

이에 비해 ‘당당하다’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으며 자격이 있음을 형용한다.

(16) 가. 엽서에 뿔뿔이 자기를 밝혔고 내용도 당당했다

나. 마치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당당함마저 엿보인다

다. 그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버티고 있었으므로 나는 주춤주춤
다가갔다

라. 이 길을 걷겠다는 젊은 작가들을 보면 참으로 그 당당함이 대견
하다

마. 소비자들 역시 선택권한과 권익을 당당히 주장하는 한편

(16-가)는 자신의 신분을 엽서에 밝힌 것처럼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자신감에 넘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9) 말뭉치 자료에서 상황을 견디어 내는 성질은 89회였으며 그 중에서 ‘진존하다/존속하다’ 등의 서술어와 호응을 이루는 [지속]은 13회였다.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는 건강한 체격은 4회로 나타났다. 본고는 견디어낼 수 있었음을 살아남았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을 흡수하여 ‘강인하다’의 의미로 [견뎌]를 내세웠다.

‘해볼 테면 해 봐라’(나), ‘버티고 서 있다’(다)와 같이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는 태도에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16-라)처럼 자신의 소신에 대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밀고나가는 행위나 (16-마)처럼 법적인 지원을 받는 권리와 호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당당하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 될 만하다는 자신감이 넘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혀 굽히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뚝뚝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¹⁰⁾

이처럼 자신과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의 것들 앞에 뚝뚝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는 ‘늠름하다’ 역시 동일하다.

(17) 가. 외부에서 작용해 오는 어떤 부당한 권유에도 뚝뚝하고 늠름하다. 일자리에 대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늠름하고 뚝뚝하다. 공비소탕작전 임무를 띠고 들어왔던 군인들의 늠름한 기상라. 이제 겨우 남편답게 늠름히 아내를 대할 수 있었고

‘늠름하다’가 쓰인 (17)의 예시는 외부의 힘을 누르고(가) 저항세력을 진압할 수 있는(다) 자신감을 보인 상태이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업무와 대인관계 또는 아내)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이다. 이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운용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답다’가 쓰인 (17-라)에서 분명해진다.¹¹⁾ 따라서 ‘늠름하다’는 ‘당당하다’처럼 자신에게는 남에

10) 자신감에 차서 상대에게 맞서는 모습이 261회(공언하다, 내세우다, 맞서다, 위세, 위풍 등등)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소유권, 주권자, 권리, 지위에 걸맞다, 당연하다’ 등 자신에게 일의 운용에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용례가 많이 나왔다(145회). 마지막으로 ‘자기 의견대로, 신경 안 쓰고, 소신대로’와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운용해 나가는 용례가 나왔다(21회). 육체와 관련된 용례는 12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게 굽히지 않아도 될 만큼 권리가 있음, 남 앞에 떳떳한 모습을 형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¹²⁾

그러나 ‘늠름하다’는 ‘당당하다’와 달리 상대방의 자신감을 비아냥거리는 예를 찾기가 힘들며, 따라서 ‘기품, 품위’ 등의 특정 어휘들과 호응을 이루는 게 특징이다.

11) ‘늠름하다’의 의미는 ‘남편답다’의 ‘답다’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답다’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대설 (절기답게/*절기스럽게) 이른 아침부터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 b. 어버이로 된다는 것은 쉽지만 (어버이답게/*어버이스럽게)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c. 나는 고개를 가우뚱 하면서 사람 사는 거란 무엇일까 하는 황당한 생각이 생각답지 않게 손끝을 저리게 하는 (어른스러운/*어른다운) 기분을 느끼곤 했다
- d. 철쭉 내를 둘러싼 기층민중어 그러니까 (속답스런/*속답다운) 언어군에 관한 것 (강소영 36 재인용)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스럽다’와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답다’는 사전상의 정의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1-a,b)에서는 ‘스럽다’가 (1-c,d)에서는 ‘답다’가 사용제약을 받는 데 주목하여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a,b는 대설은 눈이 많이 내려야 하는 날이며, 어버이라면 이러저러한 것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이 되어 ‘답다’는 그러한 성질이나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접미사라 할 수 있다. 즉 ‘답다’는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나 특성이 ‘있어야 함’을 이르기 때문에 ‘남편답다’는 남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늠름하다’는 자신감이 넘쳐 남 앞에 떳떳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36번 나타났으며, 육체와 관련된 용례는 10번 나타났다. 특히 자신감이 넘치는 ‘늠름하다’의 대상은 키가 엄청나게 자란 나무이거나, 대장군, 맥아더장군, 개신 장군처럼 지배자의 모습으로 다수 나타났다.

- (1) 가. 하늘로 날선하게 뻗은 모습들이 속세를 초월한 양 늠름한 기상을 간직하고 있다.
- 나. 맥아더 장군 못지않은 큼직하고 늠름한 풍채와 좋은 복사꽃빛 뺨을 하고 다. 거치는 곳마다 혁명 사적관을 꾸려 놓고 이름드러 나무들 중에서 대장같이 늠름한 나무에는
- 라. 그의 아버지가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신장군처럼 위대하고 늠름해 보였다

(18) 가. 영우의 당당함은 오히려 나의 화를 돋우었다. 내게 괜한 일을 한다는 식으로

나. 내선일체 시대의 말들이 당당히 우리말의 시민권을 얻어 활개를 치고 있다

(19) 가. 그는 최후까지도 평상시의 침착성을 잃지 않고 늠름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나. 民心一新에 이바지하려는 늠름한 결의의 표현

다. 정직하게 일해서 정당한 보수로 사는 생활의 의미를 아는 인간 특유의 품위가 그런 떳떳함, 늠름함을 허세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고 있다.

라. 뜨겁고 올곧은 志士, 늠름하고 의젓한 사나이

(18-가)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영우를 비꼬는 예문이며, (18-나)는 구라파, 회람, 오지리 등과 같이 일본어투가 우리말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를 비판한 예문이다. 이처럼 비판의 의미를 담은 예를 ‘늠름하다’에서는 찾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자신이 가야할 길을 (19-가), 자신이 해야 할 일(19-나)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떳떳함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19-다)와 같은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19-라)처럼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志士를 묘사의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늠름하다’에는 자신 나름대로의 품을 세운 이들의 자신감이 담겨져 있었는데, ‘당당하다’와 달리 기품, 품위(19-다) 등과 호응하고 있어, 고상하고 격이 높은 사람이 지닐 수 있는 [품격 높음]을 변별적 자질로 세운다.

3) 건강한 육체

(1) 골격과 신장

앞 절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성다움은 균형 잡힌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이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균형 잡힌 건강한 육체는 ‘남성다움’의 연상 어휘들의 체계 속에서 골격과 신장의 우월함으로 나타난다.

우선 ‘건장하다’는 아래처럼 체격, 장골을 수식하여 몸의 골격이 벽찬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됨을 의미하고 있다.

(20) 가. 건장한 체격을 믿는 것인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이 나올 줄은

나. 아놀드슈워츠제너의 우람하고 건장한 체격에 매력을 느껴다. 운동으로 단련된 그의 건장하고 완강한 체격에 썩 어울리는라. 작품의 처음 부분에서 건장한 장골의 사나이와

다부진 몸매를 의미하는 완강하다(20-다)나 기운이 세고 큼직하게 생긴 뼈대를 의미하는 장골(20-라)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음은 ‘건장하다’가 벽찬 일에 맞설 만큼 골격이 훌륭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장의 우월함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흰칠하다’가 그 대상이다.

(21) 가. 1m93의 흰칠한 키에서 우리나라오는 우렁차고 구성진 목소리
나. 송옥은 키가 흰칠하고 얼굴도 비교적 허여멀겍게 생긴 아이였다
다. 흰칠하고 힘세 보이는 큰 키와 혈색 좋은 얼굴을 가진 호걸
라. 키가 흰칠하며 남성적 기품을 지닌 이들 대엽계의 난들

흰칠하다는 예문에서처럼 신장과 관련을 맺고 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에서 신장의 중요성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¹³⁾

13) 흰칠하다는 전부 키로 모여 있으며(19회), 외양이 시원시원하다는 의미는 2번

(2) 골격, 신장+기초튼튼

‘强健하다’는 체격의 우월함을 묘사하고 있어 앞선 ‘건강하다’의 의미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아래 22-가,나) 그리고 이에 더해 ‘건강하다’와 대체하여도 좋은 예문이 다수 나타나서(22-다,라) 육체적·도덕적 질병 등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표현하는 어휘라 하겠다.¹⁴⁾

(22) 가. 뼈대가 아무리 강건해도 백년을 버티지 못한다

나. 이목이 흰칠하고 기골이 강건하여 아무 이상이 없지만

다. 꽃샘추위 속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라. 병들어서 비로소 강건한 것이 보배인 줄 알고

따라서 ‘강건하다’는 아래와 같이 기초가 튼튼한 조직체를 묘사하기도 한다.

(22) 가.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건강한 기업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데

나. 칼의 힘과 절대복종의 정신이 세로와 가로로 울이 되어 도꾸가와 체제를 강건하게 완성시켰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체를 없애으로써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씨줄과 날줄이 울울이 엮은 짜임이 좋은 조직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강건하다’의 대상이다. 결국 기초 체력이 튼튼하여 유약하지 않은 남성, 주위의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남성을 ‘강건하다’가 상징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나왔다.

14) 체격의 우월함은 7번 나타났으며, 건강하다와 대체되어도 될 만한 예문이 3번, 그리고 [-인간이 대상인 경우는 6번이었다.

4)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움을 평가

앞선 어휘들과 달리 ‘멋있다’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움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선 ‘멋있다’가 외모, 태도, 자세, 성격 등 대상으로 삼은 영역이 포괄적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3) 가. 파르스름한 꿀볼건을 하고도 스스로 멋있다고 착각하며
나. 어릴 적에 본 신부 복장이 참으로 멋있어
다. 어려서 입양될 때 한국에서 붙여준 이름을 양부모가 그대로 썼대요. 멋있죠?
라. 은철이 멋있지요? 저엔 지도자감이야

(23-가,나)는 ‘멋있다’가 외양을 대상으로 한 예이며, (23-다, 라)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주려는 마음이나 곁의 사람들을 통솔해 나가는 행동, 태도를 대상으로 한 예이다.

대상의 포괄적인 사용과 함께 ‘멋있다’는 앞 절에 나왔던 어휘들의 의미를 대체 표현할 수 있음이 특징적이다.

- (24) 가. 재주를 부려 장길산이 칼을 거두는 식으로 멋있게 문학적으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나.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라
다. (자동차운전선수의 모습) 자신감에 넘치고 멋있고 늠름하고 우상같이 느껴졌다
라. 사나이가 북태평양에서 목숨 걸고 파도와 싸우는 것만큼 멋있는 일이 어디 있겠노?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며 나가는 성우가 멋있었다
바. 근육질의 남자는 멋있잖아요

‘멋있다’의 용례에는 자연, 여자, 남자 등 표현대상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장면이 가장 많았지만, 위에서 보듯 장길산이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은 ‘대범하다’의 의미를(가), 남들과 동등하게 자신감 넘치는 삶을 이끄는 모습은 ‘당당하다’의 의미를 가진다(나). 따라서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을 당당하다, 늠름하다와 함께 표현하기도 한다(다). 또한 길고 어려운 파도와 의 싸움을 이겨내는 ‘강인한’ 어부의 모습(라)이나 남의 잘못을 과단성 있게 자르고 나서는 ‘단호한’ 자세(마), 마지막으로 아이돌 스타의 훗칠하고 체격이 좋은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바)에서는 ‘훗칠하다/건장하다’의 의미를 공유한 ‘멋있다’가 읽혀진다. 따라서 ‘멋있다’는 대범하게, 당당하게, 강인하게, 단호하게 임하는 남자의 모습을 총칭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휘라 할 수 있겠는데, 앞선 어휘들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움을 묘사하고 있다면, ‘멋지다’는 이를 평가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이 변별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앞선 어휘들은 대상의 외면과 내면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멋지다’는 대상의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평가형용사로 구별하려는 시도이다. 평가형용사는 ‘NP1은 NP2가 어떠하다’와 ‘NP1은 NP2에 어떠하다’ 형으로 나뉘는데, ‘멋지다’는 전자에 속한다.¹⁵⁾

(25) 가. 나는 그 여자가 우아하더라

나. 그 사람이 컴퓨터 분야에 뛰어나다

다. (나는)인생은 도박이라는 말이 멋있긴 한데 진리는 아니다

라. 우리 선조들의 생활방식이 정말 멋있다

(25-가, 나)는 평가형용사 두 유형을 보이는 예이다. (25-다, 라)에서

15) 이렇게 분류한 것은 김정남(2001: 194)를 참조한 것임. 형용사는 이외에도 몸감각형용사, 성질형용사, 정서형용사 등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남(2001)을 참조.

보이듯이 ‘멋지다’는 평가형용사 중 ‘NP1은 NP2가 어떠하다’ 유형(25-가)에 속한다.

다른 어휘들과 달리 ‘멋지다’만을 평가형용사로 분류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통사적 변형에서의 차이점 때문이기도 하다.

(26) 가. a. 그는 담배연기를 멋있게 내뿜었다.

b. 나는 그가 담배연기를 내뿜은 게 멋있더라.

나. a. 수철이가 먼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다

b. ?나는 먼저 앞으로 나선 수철이가 용감하다

다. a. 두수는 여자의 팔목을 소리 없이 강인하게 쥔다

b. ?나는 여자의 팔목을 소리 없이 쥐는 두수가 강인하다

라. a. 그는 의지 하나로 이런 고통들을 능름하게 견뎌낸 것이었다.

b. ?나는 그가 의지 하나로 이런 고통을 견뎌낸 것이 능름하다

(26-가)는 그 사람의 담배 피는 모습을 멋있다고 평가한 예문으로, ‘멋있다’를 그 사람의 자세를 평가하는 형용사임을 보이기 위해 마지막 서술어자리로 옮겨 보았다.(가-b) 이러한 통사적 변형이 ‘용감하다/강인하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26-나,다) 이들은 용감하다, 강인하다 뒤에 서술어 ‘생각하다/평가하다’ 등을 넣어주면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 ‘NP1은 NP2를 견딘다’와 같이 타동사구문의 ‘능름하다’ 역시 마지막 서술어로 변형하는 것은 어색하며(26-라) 이 역시 ‘~이런 고통을 견뎌낸 것이 능름하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후행 서술어가 있어야 자연스럽다. 이는 사람의 외모와 자세, 성격을 묘사한 다른 서술어들과 달리 ‘멋지다’는 화자가 대상의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이 갖는 공통적인 의미, 변별적인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씩씩하다: [미감의 향유][묘사][불굴의 정신력][기세 높음]
 용감하다: [미감의 향유][묘사][불굴의 정신력][不動의 도전의식]
 단호하다: [미감의 향유][묘사][불굴의 정신력][배척]
 대범하다: [미감의 향유][묘사][불굴의 정신력][국량이 넓음]
 강인하다: [미감의 향유][묘사][불굴의 정신력][육체의 건강함][견딤]
 당당하다: [미감의 향유][묘사][불굴의 정신력][육체의 건강함][떳떳함]
 늠름하다: [미감의 향유][묘사][불굴의 정신력][육체의 건강함][떳떳함][품격]
 웅장하다: [미감의 향유][묘사][육체의 건강함][신장]
 건장하다: [미감의 향유][묘사][육체의 건강함][골격]
 강건하다: [미감의 향유][묘사][육체의 건강함][골격][기초 튼튼]
 멋있다 : [미감의 향유][평가]

5. 결론

남성성, 남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여성주의의 거센 도전으로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상업주의의 지배로 남성의 이미지가 수동적이고 감성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업적들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자,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그들의 공통의미와 변별되는 의미를 정리하여 ‘남성다움’을 구체화시켰다. 그 결과, 불굴의 정신력을 공통의미로 하는 ‘씩씩하다, 용감하다, 단호하다, 대범하다’ 중에서 ‘씩씩하다’는 [기세 좋음], ‘용감하다’는 [不動의 도전의식], ‘단호하다’는 [배척], ‘대범하다’는 [국량이 넓음]을 변별자질로 내세웠다. 정신력과 육체의 건강함을 기본으로 하는 ‘늠름하다, 강인하다, 당당하다’는 ‘당당하다’가 [떳떳함],

‘강인하다’는 [견뎌]를 ‘늠름하다’는 [품격 높음]을 변별자질로 하여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건강함만을 기본의미로 하는 ‘건강하다, 흰칠하다, 강건하다’는 신장의 우월함은 ‘흰칠하다’로, 골격의 우월함은 ‘건강하다’로, 그리고 이를 포함하면서 기초가 튼튼함을 표현하는 데 ‘강건하다’를 사용하여 서로 구별된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모두 대상의 외면과 내면을 묘사하는 데 비해 ‘멋지다’는 대상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어휘([평가])로 분류하여 앞선 어휘들과 구별하였다.

본고에서 행한 연구는 국어학과 인접학문의 연계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갖는 분절구조를 해명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남성성의 상징체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의 내부구조를 알려주는 바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후의 연구 성과들을 낳는 데 일조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차후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적인 언어 요소가 종합적으로 조망되어 그 속에서 남성다움의 연상어휘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소영.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구조」. 『한국어의미학』 30(2009): 31-58.
- 고미라. 「여성학 용어 사전: 양성성과 여성성」. 『여성과 사회』 7(1996): 127-137.
- 구현정. 「남성형-여성형 어휘의 형태와 의미 연구」. 『국어학』 25(1995): 99-135.
- 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의미구조」. 『한국어의미학』 8(2001): 171-199.
- 김종택. 「한국인의 전통적인 여성관」. 『여성문제연구』. 1978. 187-203.
- 김진우. 『언어: 그 이론과 응용』. 서울: 탑출판사, 1985.

- 김창섭. 「국어 어휘체계에서의 남성향과 여성향」. 박창원 외.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 태학사, 1999. 87-108.
- 김혜숙. 『현대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태학사, 1991.
- 김혜정. 「현대 건축환경과 여성성의 결핍」. 『건축97』 12(1997): 6-7.
- 민현식.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34(1995): 7-64.
- 민현식.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2(1997): 529-587.
- 백선기, 김남일. 「한국 대중가요의 '남성성' 변화 추이와 이데올로기적 의미 변천 연구」. 『한국방송학회 발표논문집』(2006): 360-376.
- 부르디외. 『남성지배』. 김용숙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 신정숙. 「한국 전통사회 부녀의 호칭어와 존칭어」. 『국어국문학』 65, 66 (1974): 199-213.
- 신현숙. 「시의 종결형식을 통해 본 남성과 여성의 문체」.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1994. 485-500.
- 엠마누엘 레이노.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지배문화』. 김희정 옮김. 서울: 책갈피, 2001.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서울: 여이연, 2003.
- 유창돈. 「여성어의 역사적 고찰」. 『아세아여성연구』 5(1996): 37-72.
- 유현경.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8.
- 이기옥. 「광고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변화」. 『한국광고홍보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5. 113-130.
- 이익섭.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2000.
- 이석규, 김선희.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2-1(1992): 35-74.
- 임지룡. 『국어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2003.
- 임흥빈. 「국어의 여성어」. 장태진 편저. 『국어사회언어학논총』. 서울: 국학자료원, 1993. 67-78.
- 전혜영. 「여성대상 표현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위치」. 박창원 외.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 태학사, 1999. 111-155.
- 정기현. 「텔레비전 광고 속의 여성성과 남성성」. 『한국방송학보』 9(1997): 215-250.
- 정유성. 「한국의 남성성」. 『문학과 사회』 63(2003). 1220-1238.

- _____.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 문화 벗기기』. 서울: 책세상, 2003.
- 조성숙. 「남성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이해 : 군대와 남성96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1997. 220-225.
- 조혜정. 「남성다움의 구성과 재구성」.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269-304.
- 조지 L 모스.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차현실. 「담화방식에 나타난 여성상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 박창원 외.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 태학사, 1999. 159-229.
- 하선규. 「미감적 경험의 현상학적 재정의」. 『미학, 예술학 연구』 23(2006): 275-315.
- 한은경. 「광고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4-2(2000): 243-277.

A Study on the Semantic System of the Words Associated with Maleness

Kang, soyoung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n trying to develop mentally inherit achievements from previous studies, crystallizes ‘maleness’ by analyzing the meanings of maleness-associated words and arranging their common and distinctive meanings. As a result, Ssikssikhata ‘to be valiant’ is analyzed as [invincible spirit] [high spirits], Yongkamhata ‘to be brave’ as [invincible spirit] [immobility], Tanhohata ‘to be firm’ as [invincible spirit] [exclusion], Taypemhata ‘to be large-hearted’ as [invincible spirit] [magnanimity], Kanginhata ‘to be persevering’ as [invincible spirit] [physical healthiness] [endurance], Tangtanghata ‘to be dignified’ as [invincible spirit] [physical healthiness] [fairness], Numrumhata ‘to be dashing’ as [invincible spirit] [physical healthiness] [fairness] [dignity], HwENCHILhata ‘to be strapping’ as [physical healthiness] [height], Kencanghata ‘to be robust’ as [physical healthiness] [skeleton], Kangkenhata ‘to be vigorous’ as [physical healthiness] [skeleton] [strong foundation], and Mesissta ‘to be chic’ as [evaluation]. In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maleness-associated words can find their places with linguistic elements of sex discrimin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generally examined.

주제어: 남성다움(maleness), 연상(associate), 미감향유(beauty sense possession), 불굴의 정신력(invincible spirit), 건강한 육체(physical health), 평가형용사(estimate adjectives)

논문제출일: 2009. 12. 27
심사완료일: 2010. 01. 22
게재확정일: 2010. 01. 23

www.kci.go.kr